신안군, 대파가공 식품업체와 MOU 체결

(주)제이엘푸드, '대파육개장' 적극 홍보·판매
해풍맞고 자라 연백부 길고 굵어 전국 최고 품질

신안군은 20일 신안국민체육센터(암태면 소재)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제이엘푸드 정우철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대파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이엘푸드는 신안군에서 생산된 대파를 활용한 대파육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와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모래와 갯벌 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연백부가 길고 굵어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대파를 공급하고 관내 농산물 품질관리와 가공품개발에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제이엘푸드는 전통 육개장 전문 제조업체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량으로 납품하며 프랜차이즈 이대감과 전문온라인 "정담"브랜드로 판매 중인 식품회사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협약

(MOU) 체결이 우수한 신안 대파의 소비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촌의 부가가치 증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함평군, 귀농산어촌 종합평가 대상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좋은 평가 받아

함평군이 전남도가 실시한 '2020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지, 귀농귀촌 홍보·유치 실적, 사업홍보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함평군은 이번 평가에서 그동안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쉼표 빈집 재생사업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를 통해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과 매년 1천여 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한 것도 이번 수상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함평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힐 만큼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 귀농귀촌을 핵심인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내년에 본격 가동되는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함평을 귀농귀촌의 1번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해 실시된 귀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 최초 '스마트도서관',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 문 연다

600여권 도서 갖춘 무인형 도서대출시스템 개관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1층 홀에 목포 최초의 '스마트도서관'이 지난 20일 개관했다.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시간 제약 없이 운영되는 무인형 도서대출시스템으로 목포공공도서관의 지원으로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그간 하당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로 도서관 이용 요구가 많았으나 마땅히 이용 할 도서관이 없어 원도심에 있는 도서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베스트셀러 도서 위주로 6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 하당지역 시민의 문화적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도서관은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도서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비대면 대출반납 서비스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독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군-청계농협,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준공식 개최

밀 자급률 향상·양파 땅살리기 연계 추진 농가소득 증대

무안군은 지난 23일 청계면 송현리 청계농협(조합장 정도식)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국산밀 건조·저장시설(DSC)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김산 군수, 정도식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 임원, 대의원, 영농회장, 부녀회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건립 경과보고와 감사패 수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무안군과 청계농협은 양파 연작장해해소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3년 이상 돌려짓기가 중요함에 따라 밀, 호밀과 경관작물 등으로 일정 면적을 전환하여 소득을 양파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해 총 사업비 14억 600만원 중 5억 원을 군에서 지원하여 시설 건립을 추진하였다.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은 밀 1만 5,000가마(40kg)를 건조·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사일로 300톤 2기와 시간당 20톤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 2기, 시간당 30톤을 계량할 수 있는 호퍼식 계량기, 시간당 30톤을 선별할 수 있는 조선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식 조합장은 "국산밀 자급률 확대를 위해 밀 2,000톤 매입을 실시하고 건조·저장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2021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추가모집

영광군은 내년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도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을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마을기업 이해 및 설립에 필요한 제반교육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시군 지정 교육장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마을기업 및 공동체의 이해 ▲마을자원 발굴, 우수사례 교육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이해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수료시 2021년도 마을기업 공모사업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희망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인구일자리정책실 사회적경제팀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군, 2020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Stage 2 개최

영암군은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영암종합스포츠타운에서 지난 9월 'Stage 1. 축구클리닉'을 수료한 영암군 초3 ~ 중2 남·여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2020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 · Stage 2. 축구클리닉'을 코로나19와 관련 소독게이트,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며 진행하였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농산어촌 지역 유·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산어촌 지역 축구 꿈나무 선수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9월 영암군 유·청소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Stage 1. 축구클리닉을 진행 한 이후 두 달여 만에 Stage 2. 유명선수와 함께하는 축구클리닉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Stage 2. 클리닉에는 송종국, 이상윤 등 유명 축구선수가 영암군을 방문해 참가자들과 함께 미니게임, 기본기 훈련 등을 지도하였으며, 당초 총 3단계로 진행 예정이었던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이었던 Stage 3. 축구클리닉을 취소하고 Stage 2.에서 마무리하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축구꿈나무들에게 송종국, 이상윤 등 유명 축구선수와 함께했던 이번 클리닉이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갖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